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행복도 증진 요인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최영훈(충북대학교), 이지혜(서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들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높여야 행복도 수준이 높아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민생시책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주민 1,050명이며,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서 16개의 영역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은 '건강'이었고, 다음으로 '경제', '복지', '행정'이었다. IPA 매트릭스의 2사분면에 속한 영역 역시 '건강' 영역으로 나타나, 제주도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영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98개 항목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종합병원수준'으로 나타났다. IPA 매트릭스의 2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총 11개로 의료여건, 의사수준, 종합병원수준, 경찰서서비스수준, 물가수준, 먹거리안정성, 직업선택기회, 지역미래개선타기가능성, 실직대책, 여가에 대한 만족도, 나의소득수준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우선적인 민생시책 발굴이 요구된다.

[주제어: 행복도, 중요도, 만족도, IPA]

I. 서론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국민행복'을 선정하여, 사회적, 국가적으로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지수는 가족해체 가속화, 양극화 심화, 경쟁 심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예컨대 전 세계 15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6.27이며 41위에 머물렀다(동아닷컴, 2013.9.11).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 5월에 세계 36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행복지수'로 환산한 결과, 한국은 바닥 수준인 27위로 나타났으며, 11개 생활영역을 반영하는 행복지수 지표 중 가장 낮은 항

목은 '삶의 만족도'였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유럽 신경경제재단(NEF)에서 143개국의 국민행복지수(HPI)를 발표했는데, 1위를 차지한 부탄은 국민 100명 중 무려 97명이 '나는 행복하다'고 답했으나 우리나라는 68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행복지수는 1972년 '국민행복'을 국가제일의 목표로 천명하고 국민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를 제정한 부탄을 시작으로, UN과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에 이르기까지 국민행복을 측정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중앙일보, 2012.4.9). 그동안 경제사회 발전을 대표하는 지표였던 GDP가 삶의 질(Well-being)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행복'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황상민, 2013). 이런 국민행복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관심은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를 고려할 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인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행복을 GDP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처럼, 행복은 그 결정요인이 매우 복잡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작정 다양한 시책을 확대한다고 해서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국민의 행복시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됨으로 인해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되고 있다. 가까운 위치의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복도는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적용하고자 하는 기존의 시책들은 수요자 중심의 시책이 아닌 정책입안자들 중심의 시책으로 다양하고 막연하게 제시되어 왔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시책을 마련할 때는 지역주민에게 단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할 뿐, 어떤 시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어떤 시책에 가장 우선적으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IPA 매트릭스 분석법을 활용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세부적인 시책 중 어떠한 시책에 비용과 노력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IPA 분석방법은 Martilla와 James에 의해 소개된 이래 교육학, 심리학, 건강, 마케팅,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조미나, 양일선, 2006), 정해진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나 사항, 정책 등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여 2차원 도표에 각 위치를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주요 속성을 4사분면에 표현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쉽게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김성섭, 임재문, 이형룡 2001).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시도해야 하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시책을 발굴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행복도

국민행복 시대를 맞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기업, 국민 등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행복 증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주민 행복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이 매우 지대하다는 것은 부탄정부가 제시한 총국민행복지수와 경제개발 기구가 개발한 행복도 지수 및 일본이 최근 개발한 행복도 지수나 광역지방정부 간 행복도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분석하면 더욱 자명해진다(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2011).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매우 다면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이다(Diener, 2009).

이렇게 다면적인 행복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행복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객관적 접근법, 주관적 접근법, 종합적 접근법인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태종, 박철민, 송건섭, 2005). 첫째, 행복을 객관적인 조건으로 규정하는 입장으로 하혜수(1996)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하혜수(1996)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회지표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적인 생활수준, 평균수명, 직업의 기회와 직업선택의 다양성, 교육기회와 교육여건, 범죄율 혹은 교통사고율, 문화적 시설, 의료 보장 등이다. 이들 조건들은 대개 객관적으로 지표화 될 수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행복을 주관적, 심리적 만족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다(한표환 외, 1995; 이지혜, 2010; 이태종, 박철민, 송건섭, 2000). 행복은 주관적

판단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개인의 삶이 개인의 가치기준이나 기대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인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셋째, 주관적입장과 객관적 입장을 종합하는 입장이다(임희섭, 1996; 소진광, 1998). 여기서는 행복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의 두 가지 차원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대체로 행복에 대한 객관적 조건을 개인의 인지를 통한 주관적 평가로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자 한다.

2. 행복도 결정적 요인

행복에 있어 경제 중심의 지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서 1972년 부탄의 국왕이 창안한 총국민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개념은 경제적 요소와 삶의 질 등 총체적인 측면의 사회 발전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탄의 총국민행복지수는 요소의 다면성, 구분의 상세성, 실천성과 새로운 가치의 중시라는 특성을 지녔다. 요소의 다면성이란 총국민행복지수가 다수의 요소로 구성되는 지표를 가리키며 총국민행복지수는 국민 전체를 나타내는 것 일 뿐만아니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에 따른 지표이기 때문에 구분의 상세성을 띤다. 이러한 총국민행복지수는 정부의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김순은,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행복도를 각 도시 거주자들이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주체로서 느끼는 행복도로 규정하고,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구성으로 판단하고, 경제적인 소득에서부터 사회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최말옥, 문유석(2011),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2008), 송건섭, 김영오, 권용현(2008), 김상곤, 김성중(2008), 김명소, 김혜원, 차정호, 임지영, 한영석(2003) 등의 연구를 토대로 <표 1>과 같이 매트릭스 표를 작성하고, 한 개 이상의 연구에서 제시된 행복도 결정적 요인은 모두 포함시켰다.

<표 1> 행복도의 결정적 요인

행복도 결정적 요인		최말옥 외(20 11)	김승권 외(20 08)	EU 행복도	송건섭 외(20 08)	김상곤 외(2008)	부탄G NH	송건섭 (2007)	김명소 외 (2003)	김선정 (2011)
요인	내용									

사회경제적요인	성별	○	○	○	○															
	연령	○	○	○	○															
	교육수준	○		○																
	종교여부	○	○	○																○
	종교유형	○	○	○																○
	결혼여부	○	○	○		○														
	배우자동거여부	○																		
	취업여부		○																	
	직업	○		○																
	주택소유형태	○	○			○	○													
	개인 월소득	○	○			○	○													○
	가구 월소득		○																	
	지역거주기간	○																		
	건강	육체적 건강상태			○		○	○	○											
정신적 건강상태								○												
규칙적인 운동여부			○																	
자연환경	기후	○																		
	자연환경	○				○														○
도시환경	지역 사회환경			○																
	공원시설	○		○																○
	도시환경 관리	○				○														○
	대기오염	○		○			○													○
	소음정도	○																		○
	거리 청소상태	○																		○
	생활용수			○	○	○														
교통	전반적 교통여건	○																		○
	도로여건	○																		○
	대중교통여건	○		○			○													
	주차시설	○																		○
	편의시설 접근 용이성							○												
	교통비																			○
	교통량																			○
치안	치안수준	○		○	○	○														○
	범죄발생률	○				○	○													
	교통사고					○														
	경찰서비스 수준	○				○														
	공공시설 유지 수준	○																		
	재난 구호 여건	○				○	○													○
교육	재난 발생률	○				○	○													
	재난 대처 수준	○				○														○
	교육 여건	○		○			○													○
	교육 서비스 수준					○														○
	학교 시설	○																		

문화	교사 수준	○																			
	교육비 수준	○																			
	사설학원																			○	
	문화 여건	○		○	○	○														○	
	문화 시설	○				○	○														
	문화 행사	○																		○	
	관광 여건(도시 명소)					○	○	○													
	놀이 시설	○																		○	
	운동 시설	○																		○	
	건강	의료 여건	○				○														○
		의료 시설	○				○														
		의사 수준	○				○														
	복지	의료 서비스					○														
		복지 여건	○		○	○	○														
복지 시설		○		○	○	○															
경제	복지 기관 서비스	○		○	○	○															
	지역 경제 여건	○				○														○	
	물가 수준	○				○	○													○	
행정	생활 수준	○	○	○	○															○	
	직업선택기회					○															
	전반적 행정	○				○															
	점반적 정책	○																			
	공무원들의 열정	○																			
	공무원들의 친절도	○																		○	
	청렴도					○														○	
주거	시민들 요구 반영도	○				○														○	
	주거 환경 수준	○				○														○	
	생활 편의 시설	○				○														○	
	정보통신																			○	
	집 주변 소음 정도	○																			
지역참여여건	집 주변 청결 정도	○																			
	민원행정서비스																			○	
	사회봉사 기회																			○	
	지방정치자치																			○	
가족생활	사회참여 기회					○	○	○	○											○	
	가족화합					○														○	
	가족 행사																			○	
	가족 공유시간																			○	
	결혼할지에 대한 자율성 보장					○															
	부부 생활(이성관계)에 대한 만족도					○														○	
개인생활여건	출산에 대한 만족도					○															
	자녀의 바른 성장					○														○	

	자녀들의 우애								○
	가족건강		○						○
	부모와의 관계		○						○
	친척들과의 관계								○
직장 및 사회생활	직장안정		○					○	○
	직업만족		○					○	○
	근무환경		○						
	일에 대한 보람		○						
일상생활	실적대략							○	
	직장 구성원과의 관계		○						○
	친구(이웃)와의 관계		○	○					○
	식생활의 규칙성		○						
자기개발 및 개인심리적요인	식생활의 질		○						
	여가에 대한 만족도		○						
	휴식에 대한 만족도		○						
	근로시간		○				○		
자기개발 및 개인심리적요인	수면시간		○				○		
	잠재력 개발		○						○
	자립성								○
	이타심								○
	외모		○						○
	긍정적 인생관		○						○
	자기수용								○
	긍정적 대인관계								○
	자율성								○
	삶의 목적								○
	개인적 성장								○
	낙관주의		○						
	우울		○						
	자아존중감		○						
사회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							
유소년기 성장 환경에 대한 만족도		○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도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에 설문조사 요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전체 인구수 583,284명 중 읍·면·동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약 20%로 할당표본(QUOTA sampling) 추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1,05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49.8%)와 여자(50.1%)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연령은 40세 이상 49세 이하(23.0%), 최종학력은 고졸이상(51.7%), 주소지는 제주시(65.0%), 종교는 무교(44.4%), 결혼여부는 기혼(80.6%), 배우자 동거여부는 동거(69.0%), 자녀여부는 있음(76.9%), 자녀수는 2명(35.4%), 자녀의 학교급은 대학교(13.8%), 취업여부는 취업(74.9%), 직업은 판매 및 서비스업 종사자(26.9%), 개인월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7.5%), 가구월소득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8.8%),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39년 미만(36.4%), 육체적 건강은 보통(50.0%), 정신적 건강은 보통(48.6%), 운동여부는 불규칙적으로 운동함(51.7%)이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행복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한국인의 정서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행복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COMOSWB를 활용하였다. COMOSWB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서은국, 구재선, 2011)에서 개발한 한국 성인 대상 단축형 행복도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이다. COMOSWB는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세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삶의 만족은 자신의 개인적 측면에 대한 만족 이외에 대인관계와 소속집단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정서적 행복도는 행복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성수준 고, 중, 저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들의 경험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83, 삶의 만족 .78, 긍정적 정서 .85, 부정적 정서 .82였다.

2) 행복도 결정적 요인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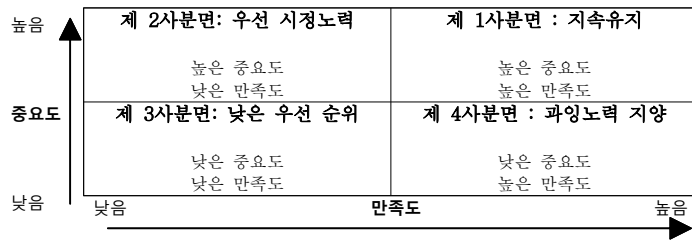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행복도의 결정적 요인은 어느 하나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유영초, 2012), 행복도 관련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크게 자연환경, 도시환경, 교통, 치안, 주거, 경제, 교육, 건강, 문화, 복지, 행정, 지역참여, 가족생활, 직장 및 사회생활, 일상생활, 심리적 요인, 종교 등의 1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표 1>에서와 같이 각각의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98개 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한 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았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별 행복도 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영역별, 각 세부 항목별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행복도 증진 요인을 산출하기 위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시하였다. IPA 분석은 중요도와 만족도의 중앙값이나 평균값을 이용하여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4 사분면의 좌표상에 각각의 값의 위치를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X축과 Y축을 설정하고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중요도-만족도 분석 매트릭스의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IPA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

IV. 연구 결과

1. 배경변인별 행복도 수준

제주도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을 배경변인별로 차이검증을 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경변인은 연령, 최종학력, 종교, 결혼여부, 배우자 동거 여부, 자녀 여부, 개인 월소득, 가구 월소득, 육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운동 여부 등 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은 40세 이상에서 69세 이하까지가 가장 행복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대와 30대 보다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경우 행복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종학력에서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민의 경우, 그렇지 않은 주민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와 불교를 종교로 가진 주민의 행복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의 경우 기혼인 경우 미혼인 경우보다 좀 더 행복도 수준이 높았으며,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함께 동거할 경우 행복도 수준이 더 높았다. 개인 월소득과 가구 월소득 모두 200만원 이상일 경우의 주민인 경우 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행복도 수준이 높았다. 건강상태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상태가 모두 좋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도 수준이 높았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 행복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경우, 사회적으로 안정될수록, 많이 배울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 수준이 높고,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기독교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경우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배경변인별 행복도 수준

	구분	N	M(SD)	t/F	Scheffe
성별	남	508	18.98(8.59)	-.266	
	여	607	19.13(8.86)		
연령	20세 이상 29세 이하(a)	152	18.15(9.32)	1.163	d, e > a, b
	30세 이상 39세 이하(b)	193	18.18(9.03)		
	40세 이상 49세 이하(c)	233	19.29(8.75)		
	50세 이상 59세 이하(d)	207	19.71(8.28)		
	60세 이상 69세 이하(e)	151	19.54(7.89)		
	70세 이상(f)	80	19.06(8.72)		

최종학력	고졸이하(a)	527	18.59(8.53)	4.460**	c, d > b, a
	2-3년제 대졸(b)	259	18.40(8.74)		
	4년제 대졸이상(c)	196	20.60(9.13)		
	대학원졸 이상(d)	21	23.00(7.99)		
주소지	제주시	665	18.89(8.96)	-.849	
	서귀포시	351	19.38(8.35)		
종교	천주교(a)	88	18.61(10.18)	3.616**	c, b > e
	기독교(b)	110	21.13(8.87)		
	불교(c)	348	19.50(8.49)		
	기타(d)	14	13.86(8.39)		
	없음(e)	455	18.47(8.39)		
결혼여부	미혼	193	17.40(9.28)	-2.949*	기혼 > 미혼
	기혼	820	19.45(8.56)		
배우자 동거여부	동거	703	19.80(8.43)	2.533*	동거 > 이혼, 사별, 별거
	이혼, 사별, 별거	121	17.69(8.83)		
자녀여부	없음	118	17.64(9.32)	-2.125*	있음 > 없음
	있음	782	19.45(8.53)		
자녀수	1명	121	18.73(9.95)	2.041	
	2명	361	19.44(8.14)		
	3명	197	19.99(8.50)		
	4명 이상	337	18.24(8.94)		
자녀가 다니는 학교 (여러명일 경우 첫째 기준)	유치원	40	18.23(8.28)	1.844	
	초등학교	105	18.10(9.46)		
	중학교	71	21.69(8.22)		
	고등학교	80	18.80(7.98)		
	대학교	143	20.47(8.48)		
	대학원	12	18.50(10.01)		
취업여부	학교에 다니지 않음	332	19.44(8.30)	-.759	
	미취업	232	18.72(8.39)		
직업	취업	774	19.22(8.82)	1.123	
	근로자(사무직)	167	18.43(9.28)		
	근로자(생산직)	63	17.78(8.10)		
	판매 및 서비스업종사자	278	18.91(8.69)		

	주부	90	18.58(8.99)	8.040***	c, d, e > a, b
	학생	44	19.91(9.08)		
	공무원 및 군인	58	19.87(8.42)		
	전문직 및 관리자	86	21.02(8.59)		
	기타	204	19.04(8.73)		
개인 월소득	100만원 미만(a)	303	18.42(8.63)	7.696***	d, e, f > a, b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b)	388	17.67(9.0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c)	162	20.68(8.1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d)	84	22.73(7.3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e)	36	22.17(7.28)		
	500만원 이상(f)	18	12.39(9.66)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a)	109	16.72(9.37)	.32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b)	219	16.92(9.1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c)	280	19.15(8.31)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d)	291	20.68(8.13)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e)	85	20.58(8.25)		
	700만원 이상(f)	26	22.31(9.05)		
거주기간	19년 이하	150	19.33(9.21)	.328	
	20년 이상 39년 이하	370	18.71(8.94)		
	40년 이상 59년 이하	331	19.18(8.51)		
육체적 건강상태	60년 이상	165	19.36(8.23)	73.684***	a > b, c
	좋음(a)	371	22.77(8.09)		
	보통임(b)	508	17.75(8.03)		
정신적 건강상태	좋지 않음(c)	136	13.76(8.77)	154.393***	a > b, c
	좋음(a)	465	23.38(7.73)		
	보통임(b)	492	16.04(7.31)		
운동여부	좋지 않음(c)	58	9.89(9.45)	24.545***	b > a, c
	하지 않음(a)	256	16.65(8.85)		
	규칙적으로 운동함(b)	233	22.04(8.17)		
	불규칙적으로 운동함(c)	526	18.89(8.51)		

* $p > .05$, ** $p > .01$, *** $p > .001$

2. 행복도 결정적 요인의 영역별 IPA 분석결과

제주도민이 인식하는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영역별 IPA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에서와 같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있어 16개의 영역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행복도 구성 영역은 '심리적 요인(6.13)'이었고, 다음으로 '가족생활(6.1)', '직장 및 사회생활(5.96)', '일상생활(5.83)'의 순이었음. 중요도가 가장 낮은 행복도 구성 영역은 '지역참여여건(5.03)'이었고, 다음으로 '문화(5.1)', '교육(5.34)' 등의 순으로 낮았다.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행복도 구성 영역은 '자연환경(5.13)'이었고, '가족생활(5.07)', '심리적 요인(4.95)', '도시환경(4.81)' 등의 순이었음.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건강(3.69)'였고, 다음으로 '복지(3.8)', '경제(3.82)', '문화(3.86)' 등의 순이었다.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체 항목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은 '건강'이었고, 다음으로 '경제', '복지', '행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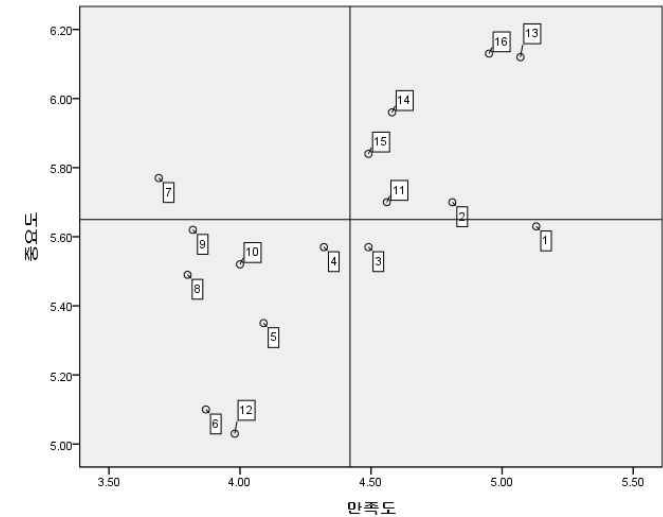
<표 3> 행복도 결정적 요인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만족도 차이

	영역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만족도	t	p	순위
		M	SD	M	SD				
1	자연환경	5.63	1.14	5.13	1.14	0.49	12.893	.000	16
2	도시환경	5.70	1.05	4.81	1.01	0.89	24.118	.000	15
3	교통	5.56	1.08	4.49	1.07	1.07	26.411	.000	12
4	치안	5.57	1.14	4.32	.97	1.26	31.566	.000	7
5	교육	5.34	1.22	4.08	1.03	1.25	27.279	.000	8
6	문화	5.10	1.22	3.86	1.13	1.23	27.374	.000	9
7	건강	5.72	1.44	3.69	1.40	2.03	31.903	.000	1
8	복지	5.49	1.40	3.80	1.30	1.68	31.399	.000	3
9	경제	5.62	1.21	3.82	1.05	1.80	38.521	.000	2
10	행정	5.51	1.23	4.00	1.13	1.52	31.865	.000	4
11	주거	5.70	1.05	4.56	.99	1.13	30.698	.000	11
12	지역참여여건	5.03	1.17	3.97	1.04	1.06	26.169	.000	13

13	가족생활	6.10	.93	5.07	1.00	1.04	28.546	.000	14
14	직장 및 사회생활	5.96	1.01	4.59	1.08	1.38	29.008	.000	5
15	일상생활	5.83	1.02	4.50	1.09	1.34	31.432	.000	6
16	심리적 요인	6.13	.99	4.95	.96	1.17	33.317	.000	10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제1사분면(지속 유지)에는 6개 영역이, 제2사분면(우선 시정 노력)에는 1개 영역이, 제3사분면(낮은 우선 순위)에는 7개의 영역이, 제4사분면(과잉 노력 지양)에는 2개의 영역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행복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우선 시정 노력)에 해당하는 항목 1개를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2사분면에 속하는 구체적인 영역은 '건강'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제3사분면에 속한 '경제', '복지', '행정' 등에 대한 영역도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이에 중기적인 개선항목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 행복도 결정적 요인에 대한 영역 IPA 매트릭스

구분	행복도 구성 영역	합계
제1사분면	도시환경	6
	주거	
	가족생활	
	직장 및 사회생활	
	일상생활	
제2사분면	심리적 요인	1
	건강	
제3사분면	지안	7
	교육	
	문화	
	복지	
	경제	
	행정	
	행정지역참여여건	
제4사분면	자연환경	2
	교통	

3. 행복도 결정적 요인의 항목별 IPA 분석결과

제주도민이 인식하는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항목별 IPA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인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서 98개의 항목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행복도 구성 항목은 '가족건강(6.4)'이었고, 다음으로 '자녀들의 우애(6.31)', '부모와의 관계(6.31)', '자녀의 바른 성장(6.28)', '가족 화합(6.14)'의 순으로 가족생활 영역의 항목이 대부분이었다. 중요도가 가장 낮은 행복도 구성 항목은 '종교행사지원서비스(4.57)'였고, 다음으로 '사회참여(4.74)', '정치참여 기회(4.75)' 등의 순으로 낮았다.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행복도 구성 항목은 '자녀들의 우애(5.38)'이었고, '가족건강(5.38)', '부모와의 관계(5.36)' 등의 순이었음.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직업선택 기회(3.35)'였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수준(3.35)', '정치참여기회(3.55)' 등의 순이었다.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체 항목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종합병원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직업선택기회', '실직대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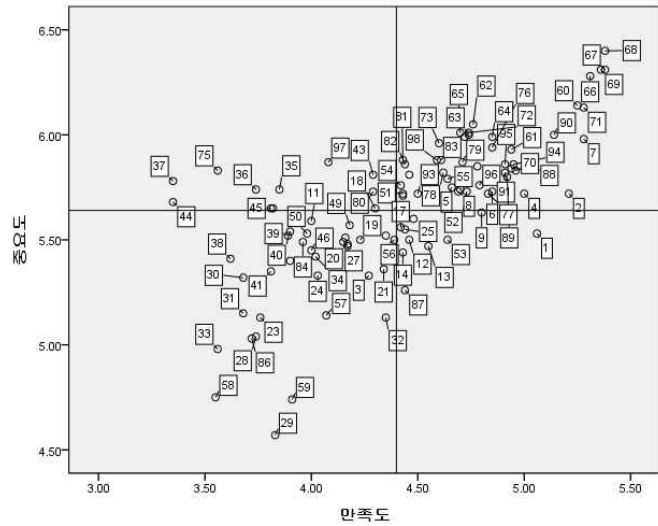
<표 5> 행복도 결정적 요인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만족도 차이

영역	항목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 만족도	t	p	순위
		M	SD	M	SD				
자연 환경	1. 기후	5.53	1.27	5.06	1.23	0.48	11.007	.000	98
	2. 지역자연환경	5.72	1.22	5.21	1.32	0.51	11.769	.000	97
	3. 공원시설	5.33	1.51	4.27	1.60	1.06	18.932	.000	64
도시 환경	4. 대기오염	5.72	1.37	5.00	1.35	0.73	15.527	.000	95
	5. 소음정도	5.75	1.43	4.66	1.56	1.09	18.504	.000	61
	6. 거리청소상태	5.73	1.22	4.85	1.39	0.87	17.749	.000	84
	7. 생활용수	5.98	1.20	5.28	1.30	0.71	16.417	.000	96
	8. 전반적 교통여건	5.73	1.34	4.69	1.50	1.04	19.095	.000	66
	9. 도로여건	5.63	1.33	4.80	1.49	0.83	15.699	.000	91
	10. 대중교통여건	5.60	1.40	4.48	1.58	1.12	19.666	.000	57
교통	11. 주차시설	5.59	1.52	4.00	1.68	1.58	24.633	.000	13
	12. 대도시로의 접근용 이성	5.50	1.40	4.46	1.59	1.05	18.727	.000	65
	13. 교통비	5.47	1.26	4.55	1.32	0.92	18.065	.000	78
	14. 교통량	5.44	1.32	4.43	1.35	1.01	19.048	.000	70
치안	15. 치안수준	5.81	1.35	4.46	1.37	1.34	26.453	.000	31
	16. 범죄발생률	5.71	1.53	4.43	1.40	1.28	23.441	.000	43
	17. 교통사고	5.56	1.47	4.42	1.38	1.14	20.234	.000	56
	18. 경찰서비스수준	5.65	1.39	4.30	1.39	1.35	24.963	.000	29
	19. 공공시설유지수준	5.50	1.38	4.23	1.46	1.27	22.986	.000	47
	20. 재난구호여건	5.48	1.46	4.17	1.39	1.31	24.804	.000	34
	21. 재난발생률	5.36	1.49	4.34	1.35	1.02	20.202	.000	69
	22. 재난대처수준	5.49	1.44	4.15	1.40	1.34	25.273	.000	33
교육	23. 교육여건의 명문대 학 진학기회	5.13	1.53	3.76	1.38	1.37	23.790	.000	27
	24. 교육서비스수준	5.33	1.45	4.03	1.39	1.30	23.062	.000	37
	25. 학교시설	5.55	1.33	4.44	1.37	1.12	21.029	.000	58
	26. 교사수준	5.52	1.37	4.35	1.24	1.17	23.245	.000	52
	27. 교육비수준	5.47	1.37	4.17	1.23	1.29	24.623	.000	40
	28. 사설학원	5.04	1.52	3.74	1.36	1.30	21.882	.000	38
문화	29. 종교행사지원서비 스	4.57	1.54	3.83	1.36	0.74	14.190	.000	94
	30. 문화시설	5.32	1.54	3.68	1.57	1.64	26.586	.000	10
	31. 문화행사	5.15	1.49	3.68	1.48	1.46	24.746	.000	19
	32. 관광여건(도시명)	5.13	1.51	4.35	1.53	0.78	14.849	.000	93

	소)									
	33. 놀이시설	4.98	1.51	3.56	1.47	1.42	24.404	.000	23	
	34. 운동시설	5.42	1.39	4.02	1.49	1.40	24.688	.000	25	
건강	35. 의료여건	5.74	1.50	3.85	1.54	1.89	30.932	.000	5	
	36. 의사수준	5.74	1.50	3.74	1.50	2.01	32.554	.000	4	
	37. 종합병원수준	5.78	1.59	3.35	1.71	2.43	30.660	.000	1	
	38.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5.41	1.53	3.62	1.42	1.80	29.847	.000	8	
복지	39. 복지시설	5.52	1.48	3.89	1.44	1.62	28.131	.000	12	
	40. 복지기관서비스	5.54	1.44	3.90	1.40	1.63	29.569	.000	11	
	41. 주민 간 소득균등화수준	5.35	1.41	3.81	1.27	1.54	28.208	.000	16	
경제	42. 물가수준	5.65	1.41	3.82	1.35	1.83	31.288	.000	7	
	43. 먹거리안전성	5.81	1.31	4.29	1.40	1.51	28.937	.000	17	
	44. 직업선택기회	5.68	1.53	3.35	1.48	2.33	37.094	.000	2	
행정	45. 지역미래개선타당성	5.65	1.43	3.81	1.52	1.84	30.798	.000	6	
	46. 행정기관의 문제해결	5.45	1.36	4.00	1.29	1.45	26.849	.000	21	
	47. 공무원들의 열정	5.40	1.42	3.90	1.39	1.49	27.468	.000	18	
	48. 공무원들의 친절도	5.51	1.38	4.16	1.41	1.35	24.844	.000	30	
	49. 청렴도	5.57	1.38	4.18	1.36	1.38	25.394	.000	26	
	50. 시민들 요구반영도	5.53	1.39	3.98	1.36	1.55	28.133	.000	14	
	51. 주거환경시설	5.72	1.24	4.43	1.22	1.30	27.859	.000	39	
	52. 생활편의시설	5.73	1.29	4.73	1.46	1.00	20.191	.000	71	
	53. 정보통신	5.50	1.31	4.64	1.52	0.86	17.090	.000	87	
	54. 집주변소음정도	5.76	1.40	4.42	1.53	1.34	24.074	.000	32	
지역참여	55. 집주변청결정도	5.79	1.26	4.64	1.32	1.16	24.634	.000	53	
	56. 민원행정서비스	5.50	1.26	4.39	1.23	1.11	23.495	.000	59	
	57. 사회봉사기회	5.14	1.38	4.07	1.29	1.07	22.024	.000	63	
	58. 정치참여기회	4.75	1.51	3.55	1.40	1.20	22.503	.000	51	
	59. 사회참여기회	4.74	1.45	3.91	1.32	0.83	17.726	.000	90	
가족생활	60. 가족화합	6.14	1.09	5.25	1.30	0.89	21.922	.000	83	
	61. 가족행사	5.93	1.20	4.94	1.37	0.99	23.326	.000	72	
	62. 가족공유시간	6.05	1.20	4.76	1.48	1.29	27.069	.000	41	
	63. 배우자선택기회	6.00	1.33	4.74	1.54	1.25	24.357	.000	48	
	64. 부부생활(이성관계)에 대한 만족도	5.99	1.28	4.85	1.63	1.14	21.345	.000	55	
	65. 안전한 학교환경	6.01	1.31	4.70	1.39	1.30	24.875	.000	36	

직장 및 사회생활	66. 자녀의 바른 성장	6.28	1.06	5.31	1.23	0.97	22.829	.000	73
	67. 자녀들의 우애	6.31	1.02	5.38	1.25	0.93	22.579	.000	77
	68. 가족건강	6.40	1.00	5.38	1.21	1.02	25.920	.000	68
	69. 부모와의관계	6.31	0.99	5.36	1.25	0.96	24.129	.000	75
	70. 친척들과의 관계	5.83	1.20	4.96	1.34	0.87	20.362	.000	85
	71. 직장안정	6.13	1.25	5.28	2.04	0.86	12.900	.000	88
	72. 직업만족	6.01	1.24	4.74	1.49	1.27	22.806	.000	44
	73. 근무환경	5.96	1.23	4.60	1.43	1.36	24.609	.000	28
	74. 일에 대한 보람	5.99	1.21	4.72	1.42	1.27	23.553	.000	45
	75. 실적대책	5.83	1.47	3.56	1.61	2.26	32.759	.000	3
일상생활	76. 직장 구성원과의 관계	5.94	1.17	4.85	1.33	1.09	21.427	.000	60
	77. 친구(이웃)와의관계	5.72	1.17	4.83	1.32	0.89	21.235	.000	82
	78. 식생활의규칙성	5.82	1.24	4.62	1.44	1.20	23.622	.000	50
	79. 식생활의질	5.87	1.15	4.71	1.25	1.16	25.424	.000	54
	80. 여가에 대한 만족도	5.73	1.31	4.29	1.56	1.44	25.712	.000	22
	81. 휴식에 대한 만족도	5.88	1.19	4.43	1.46	1.45	27.596	.000	20
	82. 근로시간	5.86	1.16	4.44	1.45	1.42	26.071	.000	24
	83. 수면시간	5.88	1.17	4.61	1.45	1.27	24.512	.000	46
	84. 잠재력개발	5.49	1.33	3.96	1.40	1.54	28.449	.000	15
	85. 자립성	5.74	1.15	4.70	1.30	1.04	22.954	.000	67
심리적요인	86. 봉사활동	5.03	1.48	3.72	1.56	1.31	23.979	.000	35
	87. 외모	5.26	1.29	4.44	1.23	0.82	18.310	.000	92
	88. 긍정적인생관	5.84	1.13	4.94	1.25	0.90	21.676	.000	81
	89. 자기수용	5.80	1.15	4.92	1.24	0.87	20.998	.000	86
	90. 긍정적 대인관계	6.00	1.04	5.14	1.20	0.85	21.776	.000	89
	91. 자율성	5.82	1.07	4.91	1.17	0.91	23.130	.000	80
	92. 삶의 목적	5.85	1.16	4.78	1.31	1.07	24.885	.000	62
	93. 개인적 성장	5.72	1.21	4.50	1.31	1.22	25.771	.000	49
	94. 낙관주의	5.86	1.10	4.95	1.20	0.91	22.258	.000	79
	95. 자아 존중감	5.86	1.12	4.91	1.19	0.95	24.646	.000	76
	96. 사회 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5.76	1.12	4.79	1.18	0.97	23.635	.000	74
	97. 나의소득수준	5.87	1.29	4.08	1.43	1.79	31.658	.000	9
	98.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5.88	1.17	4.59	1.30	1.29	28.102	.000	42

IPA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제1사분면(지속유지)에는 44개 항목이, 제2사분면(우선 시정 노력)에는 11개 항목이, 제3사분면(낮은 우선 순위)에는 32개의 항목이, 제4사분면(과잉 노력 지양)에는 11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행복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우선 시정 노력)에 해당하는 항목 11개를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제2사분면에 속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경찰 서비스 수준', '의료 여건', '의사 수준', '종합 병원 수준', '물가 수준', '먹거리 안전성', '직업 선택 기회', '지역 미래개선 가능성', '실직 대책', '여가에 대한 만족도', '나의 소득 수준'이었다.

<표 6> 제주특별자치도의 항목 IPA 매트릭스

구분	행복도 구성 항목		합계
제1사분면	자연환경	2. 지역자연환경	44
		5. 소음정도	
	도시환경	4. 대기오염	

제2사분면	교통	6. 거리척소상태	11
		7. 생활용수	
	치안	8. 전반적 교통여건	
		15. 치안수준	
	주거	16. 범죄발생률	
		51. 주거환경시설	
		54. 집주변소음정도	
	가족 생활	55. 집주변청결정도	
		60. 가족화합	
		61. 가족행사	
		62. 가족공유시간	
		63. 배우자선택기회	
		64. 부부생활(이성 관계)에 대한 만족도	
		65. 안전한 학교환경	
		66. 자녀의 바른 성장	
		67. 자녀들의 우애	
		68. 가족건강	
	69. 부모와의관계		
	직장 및 사회 생활	70. 친척들과의 관계	
		71. 직장안정	
		72. 직업만족	
		73. 근무환경	
	일상생활	74. 일에 대한 보람	
		76. 직장 구성원과의 관계	
		77. 친구(이웃)와의관계	
		78. 식생활의규칙성	
		79. 식생활의질	
		81. 휴식에 대한 만족도	
	심리적 요인	82. 근로시간	
		83. 수면시간	
		85. 자립성	
		88. 긍정적인생관	
		89. 자기수용	
		90. 긍정적 대인 관계	
		91. 자율성	
		92. 삶의 목적	
93. 개인적 성장			
94. 낙관주의			
95. 자아 존중감			
96. 사회 환경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			
98.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치안	18. 경찰서비스수준		
건강	35. 의료여건		
	36. 의사수준		

제3사분면	경제	37. 종합병원수준	32
		42. 불가수준	
		43. 먹거리안전성	
		44. 직업선택기회	
	행정	45. 지역미래개선가능성	
	직장 및 사회생활	75. 실적대책	
	일상생활	80. 여가에 대한 만족도	
		97. 나의소득수준	
	도시환경	3. 공원시설	
교통	11. 주차시설		
치안	19. 공공시설유지수준		
	20. 재난구호여건		
	21. 재난발생률		
	22. 재난 대처수준		
교육	23. 교육 여건의 명문대학 진학기회		
	24. 교육서비스수준		
	26. 교사수준		
	27. 교육비수준		
문화	28. 사설학원		
	29. 종교행사지원서비스		
	30. 문화시설		
	31. 문화행사		
	32. 관광여건(도시명소)		
	33. 놀이시설		
복지	34. 운동시설		
	38.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경제	39. 복지시설		
	40. 복지기관서비스		
행정	41. 주민 간 소득 균등화 수준		
	46. 행정기관의 문제 해결		
	47. 공무원들의 열정		
	48. 공무원들의 친절도		
	49. 청렴도		
지역참여여건	50. 시민들 요구 반영도		
	56. 민원행정서비스		
	57. 사회봉사기회		
	58. 정치참여기회		
심리적 요인	59. 사회참여기회		
	84. 잠재력개발		
	86. 봉사활동		

제4사분면	자연환경	1. 기후	11	
	교통	9. 도로여건		
		10. 대중교통여건		
		12. 대도시로의 접근용이성		
		13. 교통비		
	14. 교통량			
	치안	17. 교통사고		
	교육	25. 학교시설		
	주거	52. 생활편의시설		
		53. 정보통신		
심리적 요인	87. 외모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요인들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높여야 행복도 수준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IPA 분석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민생시책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민의 경우, 사회적으로 안정될수록, 많이 배울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 수준이 높고,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기독교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경우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인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사회적인 위치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하고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행복도를 결정하는 16개의 영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영역은 ‘건강’ 영역이었으며, IPA 매트릭스의 2사분면에 속하는 영역 또한 ‘건강’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으로 건강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결과와 맥을 함께한다.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들은 건강과 관련한 의료여건이나 시설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수준은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행복도를 결정하는 98개의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항목은 ‘종합병원 수준’ 이었고, IPA 매트릭스의 2사분면에 속하는 항목이 ‘의료여건’, ‘의사수준’, ‘종합병원수준’ 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2사분면에 포함된 항목으로

치안 영역의 ‘경찰서비스 수준’, 경제 영역의 ‘물가수준’, ‘먹거리안정성’, ‘직업선택기회’, 행정 영역의 ‘지역미래개선가능성’, 직장 및 사회생활 영역의 ‘실직대책’, 일상생활 영역의 ‘여가에 대한 만족도’, ‘나의소득수준’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우선적인 민생시책 발굴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8(2), 415-442.
- 김상곤, 김성중(2008). 지역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1), 325-351.
- 김선정(2011). 행복에 관한 메타분석.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섭, 임재문, 이형룡(2001). 중요도-수행도 분석을 통한 국제회의의 평가 : ISR2001 국제회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6(2), 257-275.
- 김순은(2013). 주민행복과 창조적인 지방정부3.0의 이론적 토대. 지방행정연구, 27(3), 3-40.
-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3.
- 동아닷컴 (2013). UN,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 발표...복지국가 '덴마크' 1위. <http://photo.donga.com/view.php?idxno=201309110010&category=0003>에서 2013년 9월 12일 인출.
- 서은국, 구재선(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소진광. (1998). 삶의 질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지역사회개발연구」, 23(1), 65-84.
- 송건섭(2007).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1(3), 35-52.
- 송건섭, 김영오, 권용현(2008). 삶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2, 4, 225-247.
- 이지혜(2010).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한국교육연구」, 27(3), 143-164.
- 이태중, 박철민, 송건섭. (2000). 지역주민의 삶의 질 분석:평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75-92.
-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 조미나, 양일선(2006). 레스토랑 유형에 따른 레스토랑 서비스 인카운터 품질 평가 수준, 감정적 반응, 고객 만족 및 서비스 충성도 차이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1(5), 524-535.
- 중앙일보(2012). "Special Knowledge <428> 삶의 질 나타내는 '행복지수'",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841321&cloc=olink|article|default. 2012년 4월 9일 인출.
- 최말옥, 문유석(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 1, 277-297.
-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81-95.
- 한표환 외. (1995). 「도시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 황상민(2013). 한국인의 행복 인식 유형.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iener, E. (2009). The Science of Well-being. New York: Springer.
- 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 (2011). Measuring Naitonal Well-being. Tokyo: The Commission on Measuring Well-being.